

인구소멸 위기 구례군 “전입 신고 해주세요”

구례 생활터전 불구 미전입 300명 귀농·귀촌, 전원 주택 입주자 대상 전입신고 유도 ‘구례愛 주소갓기’

“내가 사는 구례에 전입 신고 해주세요.”
구례군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례군은 귀농·귀촌인, 전원주택 입주자 등 구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내가 사는 구례愛 주소갓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구례는 문화유산,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섬진강과 지리산이 어우러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 귀농과 귀촌을 위해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재정 규모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시군 중 하나로 소멸 위기 도시에 늘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구례군의 인구는 2만5000여 명으로 인구수가 적고,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구 감소 속도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적은 인구수에 집단 주거지 규모도 점점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존립에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일체감 확보를 위해서 우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구례 주소갓기’를 위한 전입신고 운동에 나섰다.
840여 명의 귀농·귀촌인 가운데 주소 이전을 미루고 있는 300여 명이 대상이다.
앞서 구례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농·귀촌분야, 주택단지 조성 및 신축, 인구·청년 시책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에서 5기 교육생을 교육 중이며, 귀농귀촌 체험동지 및 보급자리를 23개소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주택수리 지원 및 농업시설 지원 등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교육을 위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원마을 8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5단지를 조성 완료했다. 추후 3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대학생 고향의 보급자리 지원, 신혼부부·다자녀보급자리 지원 등 여러 사업 추진 중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내가 사는 구례愛 주소갓기 운동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주소 갓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도 높이고 지역민과의 동화를 통해 완전한 구성원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적극행정·군정혁신 우수공무원 3명 선정



보성군이 올해 적극행정·군정혁신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수상했다. <사진>
우수상에는 보건소 정미란 감염병관리계장(보건6급), 장려상에 보성읍 김현경 주무관(간호8급)·재무과 윤상철 주무관(시설6급)이 뽑혔다.
보건소 정미란 감염병관리계장은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완료 군민에게 보성사랑상품권을 1인당 2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도내 접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읍 김현경 주무관은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 사업을 유치해 ‘나눔! 같이의 행복 든든한 한끼!’라는 밑반찬 지원 서비스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매주 1회 밑반찬을 전달하고, 나눔 냉장고 운영을 통해 기부 식음료를 지역 아동센터·불우가정에 나누는 서비스다.
재무과 윤상철 주무관은 특색 있는 읍면청사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해 읍면청사에 야외쉼터·개방형 열린카페 등을 조성했다. 안전한 주민 소통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홍보·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아이 함께 키워요”

여수시, 자녀 돌봄 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여수시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문을 열었다.
국동 임시별관 1층에 문을 연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이 육아경험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웃 자녀를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6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기자재를 지원한 데 이어 향후에도 전문 강사나 교구재 지원을 통한 금융교육, 사회성 발달 교육, 코딩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가 맡아 운영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오전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게 돌봄 공간 제공과 이용자 간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 품앗이 돌봄공동체(3개팀 10가족)를 구성해 그룹별 체험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 개선 등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서 최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에 이어 내년 상봉동 생활문화센터와 2023년 죽림 어린이도서관에 추가 설치해 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28일 권오봉 여수시장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순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 추진

추진단 구성·운영

순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순천시는 최근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 분야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총 15명으로 순천시와 협력해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 제안, 행사 참여 및 모니터링, 홍보, 교육 등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발전 경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연대 사업이다.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영화의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85개국 246개의 회원 도시가 있다. 국내에는 10개 도시가 가입된 상태다.



지난 29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 분야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단 위촉식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시는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시민 붐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11월에는 순천 문학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8일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의 상·수소도시비전 선포

광양시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자긍심과 애장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27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매도시 축하 영상, 시민현장 낭독, 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시상, 새로운 시민의 노래 시연, 수소도시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찬일 논란이 제기돼 전면 개정된 새로운 광양시민의 노래를 시립합창단 제창으로 시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수소산업을 광양시 미래 신성장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저탄소사회의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중심도시 비전을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선포해 시민들에게 광양의 미래상을 알릴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 귀농·귀촌행복학교 개강 30명 농촌 정착 맞춤형 교육

귀농, 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8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개강했다.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지난 2019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7기에 걸쳐 240명이 수료했다. 이번 8기는 지역 내·외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교육은 전문강사와 선도농가를 초빙해 귀농, 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군은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 2019년 9월 직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해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과 농촌체험 기회 부여,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1번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귀농·어, 귀촌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